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시대 성약역사’를 만났기 때문이고,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주’를 만났기 때문이다.
2.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구원받고 휴거됐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고 있다. 그로 인해 매일 기뻐 뛰며 살고 있다.
3. 하나님이 기뻐 뛰는 삶을 주셨는데도 가치를 잊고 살거나, 가치를 모르고 보통으로 생각하며 태만하게 살아간다. 이는 기도를 깊이 못 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 사명을 제대로 못 하고 살기 때문이다.
4. 마음과 정신이 태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옆에서 심정 태우며 계셔도 보통으로 예사롭게 살아가게 되나니,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과 심정을 깨달으며, 매일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라.
5. 깨닫고,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을 하는 자들이다.
6. 신앙이 죽은 자는 ‘그때의 할 일’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감각을 잃고 살아간다.